



문 서 번 호 : TRUSTON마케팅2021-461

2021년 6월 7일

수 신 : 수신처 참조

발 신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제 목 : 소규모 펀드 전부 해지 협조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트러스트 다이내믹아시아 증권자 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설정잔고는 50억원 이하로 적정 운용 규모에 미달되어 정상적인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동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신탁계약서 제44조 (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제4호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동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5.14 동 투자신탁의 원활한 해지 절차를 위해 신규 및 기존 적립식 계좌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공문 TRUSTON마케팅2021-394 소규모 펀드 전부 해지 예정에 따른 판매 중단 요청)

5. 동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고객 안내 등을 통하여 동 투자신탁의 현황 설명 및 해지 유도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 집합투자기구 : 트러스트 다이내믹아시아 증권자 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나. 해지 관련 일정

구분	일정
펀드 해지(상환)일	2021-07-09
신규/추가 매입 중단일	2021-05-17 부터 ^{주)}
소규모펀드 해지방법 공시(신문공고 포함)	2021-06-18
환매신청 가능일	2021-06-23 까지
환매청구 제한일	2021-06-24 부터
해지대금 지급일	2021-07-09

주) 공문(TRUSTON마케팅2021-394) 소규모 펀드 전부 해지 예정에 따른 판매 중단 요청 (2021-05-14) 참조

첨 부 : 고객안내문 1부

수 신 처 : KB 증권,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보험,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포스증권, 현대차증권. 끝.

트러스트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성택 · 김영호



고객 안내문

존경하는 고객님,

그 동안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보내주신 고객님의 관심과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당사의 '트러스톤 다이나믹아시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 28일, 동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동 펀드의 운용 규모는 50억 미만(2021년 6월 7일 현재 약 40억, 모펀드 기준)으로 적정 운용 규모 미달되어 원활한 운용이 불가능하고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래 '2'의 사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펀드(50억미만)에 해당)로 불가피하게 펀드 중도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해지 안내를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펀드명: 트러스톤 다이나믹아시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 해지사유: 동 펀드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로 현 상황에 지속됨에 따라 당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여 운용 중단이 불가피한 바 신탁계약서 제44조 제1항 제4호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만인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해지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3. 해지에정일: 2021년 7월 9일
4. 상환금 지급방법: 해당 고객 계좌로 입금
5. 판매회사: KB증권, 삼성생명보험,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포스증권, 현대차증권
6. 기타: 2021년 5월 17일 이후 당 펀드의 추가매입은 불가능하며 2021년 6월 24일 부터 당 펀드의 환매청구는 불가능함

동 펀드에 가입하신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다음 기회에 더욱 우수한 상품으로 고객님의 꼭 다시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래하신 판매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